

“농협중앙회 고객예금 횡령 396억원”

2004년 이후, 올해 26억3천여만원 ... 하나로마트 2007년 이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586건

송훈석 의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서 지적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11년 국정감사가 지난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송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협

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며 부족자본금 6조원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농협중앙회가 출자자인 조합원과 농민들은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송의원은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2010년에 662명으로 전년 대비 158%나 증가했다”며 “회원조합의 경우도 역대 연봉자들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3,054명으로 증가율이 지난해 44%에 달해 전체 인건비 증가율(11.5%)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했다.

송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조합 및 자회사 사고 변상 금액이 670억원이고, 중앙회 직원들이 2004년 이후 고객예금을 횡령한 금액이 396억원에 이른다”며 “농협중앙회의 도덕불감증이 도

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송의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 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고객예금 횡령사고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왜 임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대형화되고, 줄어지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송의원은 아울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청 등 행정당국에 의해 적

발된 식품사고 적발 건수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 수시매장 점검결과 적발 건수가 586건에 달한다”며 “다행히 수거해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태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송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농협이 그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소비자와 농업인들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호 기자

개업집

아야진 해양활어횃집

자연산만 고집...탁 트인 전경



아야진 해양활어횃집 김길호 대표는 자연산만 고집한다.

아야진 해안도로에 위치한 아야진 해양활어횃집은 지난 3월 사방을 유리로 장식해 동해를 바라보며 싱싱한 활어회를 먹을 수 있다.

13년의 횃집 경영노하우를 갖고 있는 김길호 대표(50세, 사진)는 갯 잡아 올린 자연산 활어만을 직접 어판장에서 구입해 손님상에 내놓고 있다.

말반찬은 인근 재래시장을 통해 그날에 쓸 싱싱한 야채를 구입한다. 특히 상에 올리는 세트 메뉴는 그날 잡은 싱싱한 잡어를 코스요리로 손님에게 내놓고 있다.

또 순서에 맞춰 올라온 코스요리에서 나온 생선뼈로 만든 매운탕은 그 맛이 일품이다.

광어뼈 다진 것을 여러 양념과 섞어 만든 ‘다짐 양

념장’을 상추와 깻잎에 싸서 회와 함께 먹으면 환상적인 조화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유명인사들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이 집은 손님이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 회를 즐길 수 있다.

김길호 대표는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맛있는 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산만을 고집한다”며 “한번 오신 고객이 다시 고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듬회 大 20만원, 中 15만원, 小 10만원, 물회(1인기준) 1만2천원, 잡어매운탕 大 5만원, 中 3만원, 회덮밥 1만원, 전복죽 1만5천원.

〈전화:631-7620〉

박승근 기자

거진 ‘김말이 참깨 떡 깻잎 송편’ 최우수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 제10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회장 이순매)는 지난 20일 미시령계곡 폭포가든에서 기관단체 관계자와 회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읍면별 퓨전떡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대회사, 격려사, 축사, 단합대 및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진행된 읍면별 퓨전떡 경진대회에서는 거진팀의 ‘김말이 참깨 떡 깻잎 송편’이 최우상을 차지했다. 간성팀이 출품한 ‘감자 찰경단’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순매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제10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지난 20일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시령계곡 폭포가든에서 열렸다.

번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기관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지도자 단체로서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2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 경마공원 야외대회장에서 열린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는 고성에서 30여명이 참가했다.

박승근 기자

제2기 숲해설가 양성교육 수료식 ... 32명 배출

고성군 제2기 숲해설가 양성교육 수료식이 지난 19일 오후4시 토성면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고성군의회 김진 의원과 기관·단체장,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성면 도원1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단위 숲 해설가 양성교육을 채택하고, 그동안 사단법인 ‘숲과 문화연구회’(대표 김기원 국민대 교수)가 주최하고 ‘숲해설가 양성교육추진단’(단장 마

수일)이 주관해 수강생 32명이 이론과 실기교육을 모두 마쳤다.

숲 해설가 양성교육은 지난해 제1기 33명 수료에 이어 이번에 32명이 수료함에 따라 고성지역에서

는 모두 65명이 지역 숲 가꾸기



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호 기자